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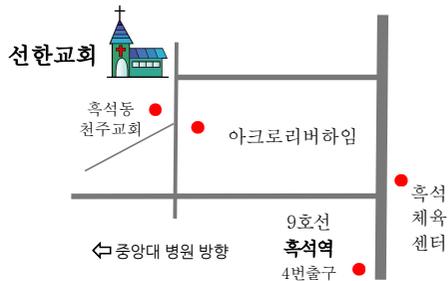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0: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0:00	바 울 회	오후 2:00
		청 소 년 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8:30	비 전 위 십	오후 2:00	에스더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월-금요일 새벽 5:30				
새 벽 예 배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교 육 목 사	정 용 준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 육 전 도 사	윤 영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협 력 전 도 사	오 호 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 외 협 력 선 교 사	이 금 춘, 조 나 단, 김 만 조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박 희 태, 유 신 웅			
	조 윤 익			
장 로	이 태 수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영 근, 윤 호 중	500/50 교 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편 도 선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사이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딤후 2:24)



담임목사 임 춘 배

## 오전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1시

인도 : 임춘배 목사  
인도 : 정용준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5장 (통일찬송가 25장)	
교 독 문	교독문 9번 (시편 15편)	
찬 양 과 경 배	151장 (통일찬송가 138장)	
기 도	윤호중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디모데후서 2장 23~26절	창 2:15,19
설 교	<b>온유한 주님의 종</b> (임춘배 목사)	<b>평일의 예배, 노동</b>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요셉회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청년부 회장
파 송 의 노 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 주일 오후

오후 3:30

사회 : 청년부 회장

찬 양	청년부 찬양팀
기 도	청년부 부회장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2장 11~18절
특 송	청년부
말 씬	<b>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려면</b> (정용준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윤 영 전도사

참된 거듭남(요 1장 12~13절)

##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안 내** 모든 예배와 부서별 모임을 코로나 이전처럼 드립니다.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점심: 부서별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청년/청소년)  
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서 울 남 부 지 방 회** 3월 14일(화) 오전 10시, 선한교회에서 있습니다.
- 창 립 예 배 및 은 퇴 , 취 임 식** 3월 19일(주일) 오후 3시. 43주년 창립기념주일예배 및 장로 은퇴식, 권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 담 임 목 사 경 동** 이번 주에 기도원을 다녀옵니다.
- 주 차 안 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주차권을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떡 제 공** 이태수 장로님 김미숙 권사님 가정 (중앙대 총무처장 퇴직)

##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온유한 주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도록.

찬송 :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통 235)

본문 :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 :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난 언어량에 노출돼 있습니다.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과 전화, 인터넷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 집에서 가족과 친구의 말을 듣고 삽니다. 수많은 말을 듣고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와 마음, 생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들은 그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적힌 부분이 있고, 그분의 뜻을 받은 사람이 보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이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이들의 결과도 실려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나 문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적 책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그 말씀대로 삽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후 저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걷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저를 새롭게 합니다. 제 안에 용기를 불어넣고 부족함도 깨닫게 합니다. 잘못을 회개케 하고 삶의 목표를 제시해줍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는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느낍니다. 또 그 깊은 지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입니다.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에는 말하는 분의 뜻이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가 아닌 인격으로 성경을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도 듣질 못합니다.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잘 차려놓아도 먹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다 쪼개놓고 그저 자기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되다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먹는 사람이 복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안정된 직장에 육체가 건강한 사람, 인기와 권력이 엄청난 주변의 숭배를 받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복됩니다. 예수님은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줬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고 또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 위해 죽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살아내는 자를 기뻐합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이 있는 자를 찾고 그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 목

## 온유한 주님의 종 (딤후 2:23~26)

서 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 1. 주님의 종의 합당한 모습

(1) 우리는 주님의 종(마 20:28 / 롬 1:1 / 롬 14:7~8)

(2) 이사야의 '종의 노래'(사 42장 / 49장 / 50장 / 52장)

(3) 종의 모습과 사역(24, 25절)

① 온유하며 ② 가르치기를 잘하며 ③ 참으며 ④ 온유함으로 훈계함

(4) 사역의 결과(25, 26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하심.

본 론

### 2. 교훈

(1) 나는 누구의 종인가?

(2) 주님의 종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3) 주님의 종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결 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온유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윤호중 장로	이태수 장로
2부 예배 헌금	이소영 집사	서창덕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청년부	이혜경 권사
주 방 봉 사	청년/청소년	마리아회

매일 Q.T.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무력화되는 악한 시도	날짜 : 3월 6일
찬양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본문	사무엘상 19:18~24		
말씀요약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행한 일을 다 전합니다. 두 사람은 나뉘어 로 가서 삽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 전령들이 예언합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자 사울이 라마 나뉘어 직접 잡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해 그가 벗은 몸으로 예언합니다.		
목상질문 1	라마 나뉘어 도망한 다윗 19:18~21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 근처에 이르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 나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무산된 악한 시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라마 나뉘어에서 예언하는 사울 19:22~24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옷을 벗고 예언하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 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19장 18절 모든 이를 품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사울에 게 쫓김을 당하는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악한 자를 품어 주는 너그러운 성품 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듯(시61:3), 성도는 세 상의 악한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작은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 만을 생각하는 이 시대의 어둠을 환히 밝힐 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된 줄로 생각하고 선 줄로 생각하며 저를 내세웠던 교만함과 어리 석음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다스림 받아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집어지게 하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품에 피해 세 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헌신적 사랑, 거룩한 분노”	
찬양과 기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새 90,G)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김병삼 목사님의 <치열한 도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청년 의사 안수현은 의학 분업 문제로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할 때 동 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사명과 믿음의 절박함으로 환자를 돌보는 헌신을 했던 것이다. 그 가 선택한 헌신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었다. 헌신이란 옳고 그 름의 문제를 떠나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헌신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160;“그렇게까지 해야 해?”에서 ‘그렇게까지 하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동일한 도전이 교회에도 적용된다. 안수현은 정말 하루 24시간을 헌신적으로 살았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부족했었 까? 그럼에도 그는 부족한 시간을 쪼개 환자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환자들에게 찬양 테이프와 책을 선물했을 뿐 아니 라, 퇴원한 후에도 그들의 집을 찾아갔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세상 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장례식에 찾아가 가족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오지랖 넓은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견해로는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이었다. 환자를 단지 자신의 의술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 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 적이 있 나요?		
말씀 나누기	사무엘상 20:24~34		
목상포인트	사울의 분노와 요나단의 분노가 대조됩니다. 사울은 왕권을 고수하기 위해 무죄한 다윗과 그를 돕는 요나단에게 분노합니다. 이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분노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 다.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 뜻을 거슬러 다윗을 살해하려는 아버지 사울에게 분노합니다. 요나단의 분노는 불의에 대항하는 거룩한 분노 입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는 진리에 대한 열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과 성전의 타락상에 거룩한 분노를 발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불의한 일을 용기와 지혜로 막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은 이유는 무엇인가 요?(28~30절)		
적용하기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요나단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요나단처럼 불의에 맞서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맹세한 대로 행하는 지고한 사랑	날짜 : 3월 10일
찬양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본문	사무엘상 20:35~42		
말씀요약	요나단이 정한 시간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가 화살을 쏩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 의미를 압니다. 아이를 보낸 후, 다윗이 요나단에게 세 번 절하고 서로 입 맞추고 읊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헤어집니다.		
목상질문 1	다윗에게 신호를 보냄 20:35~39 요나단은 화살을 통해 다윗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나요? 내가 맹세하거나 약속한 대로 거짓 없이 신실하게 이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작별 인사 20:40~42 다윗이 요나단에게 세 번 절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게 지고의 사랑을 베푸는 이는 누구며, 그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20장 41절 ‘진심’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화살의 위치를 통해 다윗의 위험을 알려 준 요나단의 진심은 다윗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성적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화려한 연설보다 한번의 진실한 행동에 더 큰 울림이 있는 법입니다. 성도는 선한 행실로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 자기 존재를 과시하지만, 성도는 ‘진실한 삶’으로 자기 존재를 말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매 순간 흔들리고 변하는 제 연약함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서로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지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매일 Q.T.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날짜 : 3월 7일
찬양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본문	사무엘상 20:1~11		
말씀요약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함을 말하고,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초하루 식사에 불참할 테니, 매년제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다 전하라고 하면서, 사울이 노하면 자신을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겠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의중을 확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목상질문 1	다윗의 하소연 20:1~4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친구는 누구인가요?		
목상질문 2	다윗의 부탁 20:5~11 사울의 본심을 알아내기 위해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암울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내가 시도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20장 3절 경건 생활에서 두려움은 무서운 적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며 자신의 깊은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 실패했을 때 더 무섭고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도 두려움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 너는 내 것이라”(사43:1)라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멈추지 않는 고난으로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질 때도 오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호소하게 하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악으로 맞서지 않고, 먼저 포기하며 주저앉지도 않게 하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밀게 하소서. .		

매일 Q.T.		하늘을 증인 삼은 사랑의 맹세	날짜 : 3월 8일
찬양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본문	사무엘상 20:12~23		
말씀요약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데도 알리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끊어 버리실 때 자기 집에 인자를 베풀라며, 다윗은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에셀 바위 부근에 화살을 쏘아 다윗이 돌아올지 도망할지를 알려 주겠다고 합니다.		
목상질문 1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음 20:12~17 다윗을 향한 하나님 뜻을 아는 요나단은 어떤 맹세를 했나요? 내가 명예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만 따를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요나단이 다윗과 신호를 정함 20:18~23 요나단이 그의 말에 '여호와께서'를 계속 해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심을 새롭게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20장 16~17절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가페'에는 "타인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다윗과 소망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부담을 주는 '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가 사는 동안 무엇보다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깨닫습니다. 제 안위와 유익을 좇느라 하나님 뜻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관계와 행동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게 하소서. 머물든지, 떠나든지 제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만 가게 하소서.		

매일 Q.T.		의로운 항변과 미움받을 용기	날짜 : 3월 9일
찬양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본문	사무엘상 20:24~34		
말씀요약	초하루에 사울은 아무 말 없다가 둘째 날에 다윗의 행방을 묻습니다.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해 보냈다고 요나단이 답하자, 사울은 화를 내며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에게 단창까지 던지니,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알고 슬퍼합니다.		
목상질문 1	다윗을 찾는 사울 20:24~29 사울이 다윗의 빈자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갈등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분노하는 사울 20:30~34 다윗 편을 드는 요나단에게 사울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나요? 나는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요나단처럼 기꺼이 미움받을 용기가 있나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20장 30절 분노가 격해질 때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여과되지 않은 말은 '톡'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을 향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폭언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결과입니다. 가등과 불화의 원인 중 하나는 '무례한 말'입니다. 말과 분노와 욕망은 조금만 줄여도 개인 경건에 큰 유익을 줍니다. 성도는 선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뿐 아니라 공동체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엡4:29)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는 말씀의 샘으로 나아가 차오르는 욕심과 분노를 씻게 하소서. 삶을 세밀히 도우시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며, 외면당하고 손해 보더라도 당당히 진리 편에 서게 하소서.		